

【논문】

1885년 曹廷杰의 만주 답사

—청말 漢人 지식인의 만주 인식과 邊政 개혁론—

송인주*

차례

- I. 머리말: 永寧寺碑의 재발견
- II. 19세기 청조 만주 지배의 위기: 1885년 만주 답사의 배경
- III. 1885년 曹廷杰의 청-러 변경 시찰 답사
- IV. 1886년 曹廷杰의 16개조 만주 개혁론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1885년 조정걸의 만주답사를 통하여, 1880년대 청조의 만주 지역 변경 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 글이다. 19세기 청조의 만주 지역 변경 정책은 대내적, 대외적으로 위기를 맞는다. 대외적으로 러시아 제국이 극동지역으로 동진하면서, 1860년 북경 조약을 통해 청조는 우수리 강 이동 연해주를 러시아에 할양한다. 대내적으로는 청조의 봉금정책이 이완되면서, 한인 유민들이 대거 만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만주에서의 수렵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려 했던 청조의 의도는 좌절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조는 만주 변경에 대한 개혁 작업을 모색하게 되었고, 1885년 길림 당국은 조정걸을 청-러 변계 지역로 파견하여 그 곳의 정세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정걸은 청말 만주 지역 역사를 정리한 역사학자이자, 1880~90년대 길림 지역의 행정을 책임졌던 실무 관료이기도 하였다. 그는 1885년 3월부터 9월까지 청과 러시아의 변계 지역인 우수리 강 유역과 흑룡강 하류 유역을 답사하였다. 그는 답사 과정에서 만주 변경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형세와 식민 정책뿐만 아니라, 만주 변경 지대의 한인, 조선인, 일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거주 양상, 청조가 개국하는 과정에서 흑룡강

*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여러모로 부족한 논문을 꼼꼼이 살펴주시고 아낌 없이 조언을 해 주신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역을 지배했던 혼적 등 다양한 사항들을 견문하였다. 이러한 실증 답사를 통해 조정결은 만주 지역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러시아의 진출로 위기에 봉착한 청조의 만주 지역 지배 체제를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1886년 조정결은 그가 만주 답사에서 조사한 것들을 토대로 16개조의 개혁안을 청조에 건의하였다.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 한인을 활용하여 토지를 개간할 것, 유명무실화된 흑룡강 지역 변경 부락들의 담비 가죽 공납을 중지시킬 것, 금광을 개발하여 국부를 증대시킬 것 등이다. 이러한 개혁안들은 그동안 청조가 전통적으로 만주 지역을 지배해 오던 방식을 사회, 경제적인 구조에서부터 전환시키자는 것이었다. 즉 팔기제도와 수렵 채집 경제 위주의 청조의 전통적 만주 지배 구조를 한인 중심의 토지 개간과 금광 개발 등을 골자로 한 구조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조정결의 개혁안의 일부는 청조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한인 이주를 통한 토지 개간과 금광 개발 등은 1880~1890년대 길림 당국에서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었다. 청조는 이러한 통치구조 전환을 통해서 만주 지역을 제국형 근대국가로서의 청조의 '동북 변경'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1885년 조정결의 만주답사와 그에 따른 16개조의 만주 통치 개혁안은 청대 변경사와 만주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 주저어: 조정결(曹廷杰), 만주, 청조, 변무(邊務), 흑룡강(黑龍江), 길림(吉林)

I. 머리말: 永寧寺碑의 재발견

1885년(淸 光緒 11년), 흑룡강(아무르 강) 하류의 特林, 청조에서 파견한 漢人 관료 1명이 흑룡강 동쪽 강가 절벽에서 있는 2개의 비석을 조사하고 있었다. 청조의 한인 관료는 이 비석 2개가 범상치 않은 것을 짐작하고 이 2개의 비석을 탁본하기 시작하였다. 이 2개의 비석은 “奴兒干都司永寧寺記碑”와 “重建永寧寺記碑”라고 밝혀졌고, 속칭 “永寧寺碑”라고 알려졌다.

영녕사는 1413년 흑룡강 하류 特林에 지어진 사찰이었다. 이 사찰은 단순한 종교적 기능만 지닌 사찰이 아니라, 명조가 흑룡강 하류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끼쳤음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이었다. 1409년, 명의 영락제는 환관 이시하(亦失哈)를 파견하여, 흑룡강 하류 유역인 特林에 누르칸 도사(奴兒干都司)를 설치하고 그 휘하에 현지 추장들을 首長으로 하는 184개의 衛와

所 20개를 두어, 현지의 女眞 부락들을 명의 영향력에 두고자 하였다.¹ 이와 함께 永寧寺를 짓고, 한문, 몽골문, 여진문자 3가지로 쓴 “奴兒干都司永寧寺記碑”를 세워 명의 교화가 흑룡강 하류의 여진 부락까지 미쳤음을 드러내곤 하였다. 하지만 흑룡강 유역에서의 명의 영향력은 확고한 것이 아니어서, 여진 부락들은 명의 羈靡政策에서 이탈했고, 영녕사 역시 현지 주민들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1433년 다시 증수되었다. 이 때 다시금 한문으로 비석이 세워졌으니, 이것이 “重建永寧寺記碑”였다.²

그러나 15세기 이후 명의 흑룡강 유역에 대한 지배력은 쇠퇴해졌고, 영녕사 역시 쇠락하여, 17세기가 되면 特林에는 이 2개의 비석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비석에 대해서는 여러 목격담이 있었다. 1675년~78년 외교사절로 청에 체재했던 N.G 스퍼베리에 의하면, 1650년 대 흑룡강 하류로 진출했던 코사크 병사들이 이 2개의 비석을 목격했다고 하고, 청조 순치 연간과 강희 연간에 길림과 닝구타(寧古塔) 지역으로 유배되었던 吳兆蹇과 楊賓 등의 한인 문인들도 이 비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³ 또한 1808년~1809년, 에도 막부의 명령으로 두 차레 홋카이도와 사할린, 흑룡강 하류를 정찰하였던 마미야 린조(間宮林藏)도 흑룡강 하류에서 이 비석을 발견하고, 그의 『東韃地方紀行』에 비석의 존재를 글과 그림으로 남겼다. 하지만 이들은 비석을 목격만 하였을 뿐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분석하지 않았다.⁴

1885년, 흑룡강 하류 유역을 답사하여 다시금 永寧寺碑에 대해서 주목하고 탁본하려고 했던 청조의 한인 관료는 曹廷杰(1850~1926)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비석의 탁본을 떠서, 그것을 면밀히 연구하여 이 비가 명대 누르칸

1 愛新覺羅 烏拉熙春, 2014. 이상규·다카구치 게이코 역주, 『명나라 시대 여진인-‘여진역어’에서 ‘영영사기비’까지』, 경진출판, 240쪽; 명대 누르칸 도사의 통치체제에 대해서는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530~539쪽을 참조할 것.

2 愛新覺羅 烏拉熙春, 2014, 위의 책, 240~241쪽.

3 愛新覺羅 烏拉熙春, 2014, 위의 책, 243~244쪽.

4 間宮林藏, 村上貞助 編, 『東韃地方紀行 他』, 平凡社, 2008, 155~156쪽.

도사에 건립된 영녕사에 대한 비석임을 밝혔다.⁵ 아울러 조정걸은 명의 지배권이 흑룡강 하류 유역까지 미쳤음을 ‘재발견’하였다. 이로써 조정걸은 러시아 제국에게 빼앗긴 흑룡강 유역에서의 ‘中國’의 지배권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보여줄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다. 이것이 바로 조정걸이 ‘영녕사비’를 주목한 이유였다.

曹廷杰은 字가 彝卿이고, 湖北省 支江 출신이다. 1883년 北京 國史館에서 근무하다가, 1883년 吉林으로 가서 吳大澂의 건의로 모집된 鄉勇 부대인 靖邊軍 後路營의 辦理邊務文案으로 근무하였다.⁶ 조정걸이 흑룡강 하류 유역에 파견된 것은 바로 이 시기로, 三姓 지역 靖邊軍 측이 러시아의 흑룡강 유역 지배 상태를 정탐시키고자 그를 파견한 것이었다. 본문에서 상술하겠지만, 조정걸의 만주 답사는 1885년 3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흑룡강 유역과 우수리강 유역을 답사한 조정걸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西伯利東偏紀要』와 『東北邊方輯要』, 『東三省輿地圖說』 등 만주 지역에 대한 역사지리 서술들을 편찬하였다. 1889년 山西의 和順·寧武 知縣으로 부임했던 조정걸은 청일전쟁 이후 다시금 만주 지역으로 돌아와 吉林邊務文案總理, 呼蘭木稅總局總理, 吉林知府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清末 吉林 지역의 邊務를 담당하였다.⁷

조정걸은 역사학적으로 청말 만주의 역사를 정리하여 中國의 ‘東北邊疆史’ 체제를 확립하는 데에 중요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18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청조의 ‘東北建省’의 최전선에서 실무를 책임진 관료이기도 하였다. 1880년대는 청조가 러시아와의 아이훈조약(1857)과 북경조약(1860)을 체결한 이후, 만주 지역을 근대국가의 ‘변경’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작업들을 바탕으로 1907년 청은 ‘동삼성체제’를 수립하고 만주 지역을 중국 내지와 동일한 체제로 편입시켰다. 조정걸은 청이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주가

5 愛新覺羅 烏拉熙春, 2014, 위의 책 244쪽.

6 『曹廷杰集』上, 1985, 從佩元·趙鳴岐 編, 中華書局, 1쪽.

7 각주 6과 같음.

‘중국’이라는 근대국가의 영토가 되어야 할 역사적 정당성을 탐구하는 동시에, 만주를 어떻게 근대국가의 영토로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를 모색한 관료이기도 하였다.

조정걸은 청말 근대 변경사, 특히 만주 지역의 근대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다. 대체로 이 시기 청조의 만주지역 지배에 대한 연구도 다소 부족한 편이고,⁸ 대체로 1880년대 청-러 국경조약이나 청-조선 국경조약에 집중되어 있거나,⁹ 1907년 동삼성 행정체제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¹⁰ 조정걸의 경우, 1985년 그의 문집이 中華書局에서 정리되어 『曹廷杰集』으로 출판되고,¹¹ 2012년에는 그의 길림지역에서의 활동에 관련한 檔案들이 『吉林省檔案館藏清代吉林檔案選編』에 수록되어 출판되기도 하였다.¹²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8 본고의 연구 주제인 1880년대 전후 만주지역, 특히 길림 지역에 대한 청조의 정책 전환에 대해서 연구는 堀瀨進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그는 1860년 북경 조약 이후, 길림 지역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청조 지방당국의 길림 지역 지배체제 변용에 대해서 정리하였다(堀瀨進, 2008, 「中國東北統治の變容」, 『近代東北アジアの誕生』, 北海道大學出版會).

9 19세기 청-조선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학계에서 이미 상당한 연구성과가 있다. 특히 김형중은 1880년대 조선과 청 사이에서 추진된 국경 감계에 관한 청과 조선 측 사료를 집대성하고, 번역하여 『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 관련 자료 선역』(2014,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을 출판하였고,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201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등의 연구 성과를 내었다. 또한 미국 학계에서도 2019년 Nianshen Song이 1880년에서 1919년까지 두만강을 둘러싼 청과 조선간의 분쟁에 주목하고, 두만강 국경 지대의 트랜스내셔널적 성격을 분석하였다(Nianshen Song, 2018, *Making borders in modern East Asia : Tumen River demarcation, 1881-1919*,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10 1907년 東三省 지역의 建省 문제와 행정 개혁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는 高月, 2012, 『清末東北新政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阿地力艾尼, 2011, 『清末邊疆建省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정혜중, 2006, 「光緒年間(1875~1908)의 동북관리와 1907년 東三省 설치」, 『中國學報』 54, 2006 등이 있고, 최근 이지영은 청말 新政 시기 팔기제도의 변용을 통해 1907년 동삼성 체제와 팔기제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하였다(이지영, 2019, 『清末 新政期(1907~1911) 吉林省의 旗制 개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 叢佩元·趙鳴岐 編, 1985, 『曹廷杰集』 上·下, 中華書局. 『曹廷杰集』은 『西伯利東偏紀要』와 『東北邊方輯要』, 『東三省輿地圖說』 등의 조정걸의 저작들을 집대성 했을 뿐만 아니라, 吉林省檔案館 등에 소장된 조정걸의 길림 邊務 관려 檔안들을 다수 수록했기 때문에, 조정걸 개인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청말 길림 지역 변경문제와 관련된 연구에도 유용하다.

12 『吉林省檔案館藏清代吉林檔案選編』(吉林省檔案館 編, 國家圖書出版社)은 총 68冊으로 대체로 光緒~宣統年間 길림지역의 教育, 實業, 禁煙, 荒務 등에 관련된 檔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를 대체로 ‘애국주의적’ 역사학자의 측면에서 주목하였고, 그가 제시했던 만주 지역에 대한 개혁론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았다.¹³

본고에서는 조정걸의 1885년 흑룡강~우수리 강 유역 답사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한다. 1885년 흑룡강~우수리 강 유역 답사는 조정걸이 만주를 ‘중국’이라는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로 새롭게 파악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조정걸은 1884년 답사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청조에 만주 지역에 대한 개혁 안건들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후 청조의 만주 지역 지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1885년 조정걸의 만주 답사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면, 당시 청조의 중앙과 지방에서 만주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개혁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885년 조정걸의 만주 답사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고, 답사 이후 조정걸과 청조 당국이 만주에 대한 어떠한 개혁 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중 조정걸 관련 당안은 제67冊에 정리되어 있는데, 1880년대 초 조정걸의 활동에 대한 당안이 아니라, 1900년대 초 조정걸이 吉林知府로 부임한 후 작성된 電報, 報告書 등의 당안들을 수록하고 있다.

- 13 조정걸에 대한 중국에서의 연구로는 叢佩遠: 趙鳴岐, 1985, 「曹廷杰生平活動年表」, 『歷史檔案』을 비롯하여 이후 石岩: 盖立新, 1994, 「论曹廷杰的实业救国思想」, 『黑龍江史志』; 董丹, 2000, 「曹廷杰及其《西伯利亚偏纪要》」, 『西伯利亚研究』; 兴夫: 德标, 2001, 「爱国学者曹廷杰」, 『黑龍江史志』; 罗见今: 王淼, 2008, 「晚清輿地学者与新地学的兴起」, 『哈尔滨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马熙森, 2012, 「曹廷杰与东北史地研究」 등이 있다.

II. 19세기 청조 만주지배의 위기: 1885년 만주답사의 배경

청대 만주 지역은 매우 특수한 지역이었다. 우선 康熙帝 이후로 제국의 동북쪽 변경으로 러시아와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청조에게 있어서 만주 지역은 단순한 동북 변경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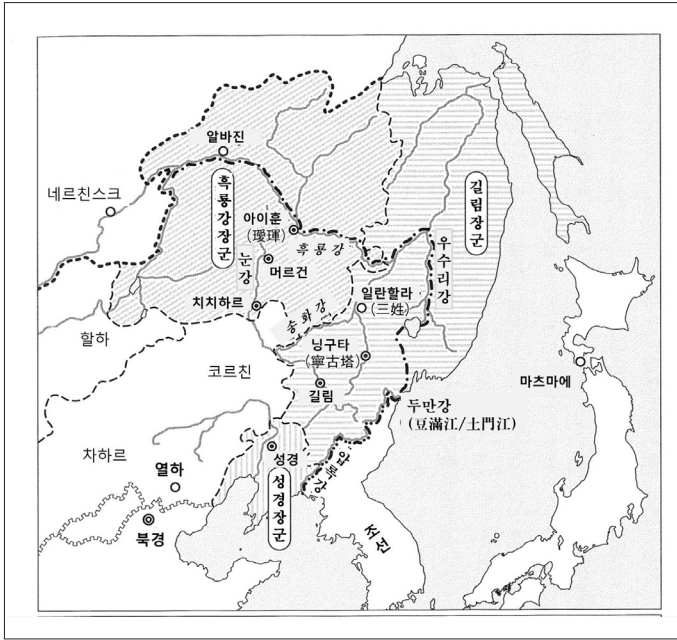
우선 청조의 ‘發祥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청조는 만주인이 건국한 국가였다. 따라서 청조의 지배층인 만주인들은 당연히 그들의 원 거주지였던 만주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었다. 특히 건륭 연간에는 만주인의 ‘한화’ 현상이 대두되자, 만주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주 지역이 ‘發祥重地’, ‘龍興之地’로서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滿洲源流考』 편찬 등 만주 지역의 역사를 청 황실의 의도대로 재확립 하려는 작업이 진행되기도 하였고, 長白山(백두산)에 대한 제사도 정비되었다.¹⁴

또한 청대 만주 지역은 ‘八旗’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1644년 청조가 入關 하면서, 팔기의 대다수가 청의 새로운 수도인 북경과 그 인근으로 이주하였다. 하지만 팔기의 경제적, 정신적 근간은 만주 지역에 있었다. 물론 건륭 후반기로 갈수록 팔기의 대부분이 국가에서 받는 봉급(銀餉)으로 생계가 유지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팔기의 경제력의 원천은 토지에 있었고, 팔기 소유의 토지는 대체로 하북과 만주 지역에 있었다.¹⁵ 또한 청 황제들은 지속적으로 팔기에 대해서 만주 지역이 ‘根本重地’임을 강조하면서, 팔기의 정신적 고향이 만주임을 강조하였다.

14 청 황실의 만주인 정체성 강화와 만주 지역의 신성화에 대한 연구는 이훈, 2013, 「17-18세기 淸朝의 滿洲地域에 대한 政策과 認識-건륭기 만주족의 위기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참고할 것.

15 청대 만주 지역에서 팔기 소유의 토지는 대체로 盛京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吉林과 黑龍江 지역은 軍屯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김선민, 2018, 「청대 만주의 자연환경과 제국의 관리방식」, 『명청사연구』 49, 229~234쪽; 趙令志, 2001, 『淸前期八旗土地制度研究』, 民族出版社, 196~227쪽).

〈그림 1〉 19세기 청대 만주 행정구역(左近幸村編, 2008, p.238 참조)



그리고 만주 지역은 청 황실의 경제적 독점지역이었다. 특히 길림 지역에서 나는 貂皮·東珠(만주어로는 tana)·人蔘은 “東北三寶”라고 불렸는데,¹⁶ 단순히 고부가 가치의 위신재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청 황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물이었다.¹⁷ 청은 만주 지역의 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柳條邊을 설치하여 내지로부터의 民人들의 출입을 막고 길림 지역에는 부트하을

16 薩靈阿의 『吉林外紀』에는 乾隆帝가 東北三寶인 人蔘, 東珠, 貂皮 등을 찬양한 御製詩가 수록되어 있다. (『吉林外紀』, 卷首)

17 최근 구미학계에서는 ‘東北三寶’와 청 황실의 정체성의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연구 저작으로는 David A. Bello, 2016, *Across Forest, Steppe, and Mountain: Environment, Identity, and Empire in Qing China's Borderlan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nathan. A Schlesinger, 2017, *World Trimmed with Fur: Wild Things, Pristine Places, and the Natural Fringes of Qing Ru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Seonmin Kim, 2017, *Ginseng and borderland : territorial boundaries and political relations between Qing China and Chosŏn Korea, 1636-1912*, Oaklan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가 있다.

라 총관을 두어 초피와 동주 등의 채집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청조는 만주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했는가? 청의 만주 지배 체제는 강희 연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기본적으로 ‘軍府制’, 혹은 ‘將軍體制’였다. 盛京, 吉林, 黑龍江의 세 將軍이 분할하여 軍政과 民政을 책임졌고, 그 아래에는 군사적 요충지마다 駐防이 설치되어 八旗가 주둔하고 副都統이 파견되어 책임지는 형식이었다. 또한 柳條邊을 기준으로 柳條邊 안쪽의 盛京 일대는 州縣制가 실시되고 柳條邊 바깥쪽의 길림과 흑룡강 지역은 고를로스 등 몽골인 거주 지역의 경우는 盟旗制가 실시되고, 송화강, 우수리강 흑룡강 중하류 유역의 퉁구스계 토착 주민 거주지의 경우에는 그들의 관습대로 ‘가산(村)-할라(姓)’ 제도가 실시되었다.¹⁸

청조가 중원으로 중심을 옮긴 1644년부터 1850년대까지 약 200년 간, 안정적인 만주 지역 지배를 구축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요인은 만주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구성원이었던 러시아와 조선과의 대외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청은 鴨綠江(만주어로 yalu bira)과 豆滿江(만주어로 tumen bira)을 경계로 조선과 접하였고, 흑룡강(만주어로 sahalyan ula)을 경계로 러시아와 경계를 접하였다. 따라서 만주 지역의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조선 간의 관계가 우선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청조는 1627년과 1636년 두 차례 조선을 침공하고 ‘丁丑約條’를 맺으면서 조선과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강희 연간에는 吉林烏拉總管 穆克登을 파견하여 ‘白頭山定界碑’를 세움으로써 조선과의 경계문제도 일단락시켰다.¹⁹ 러시아의 경우, 1640년대 이후부터 카자크 부대를 앞세워 흑룡강 유

18 청대 만주, 특히 길림·흑룡강 지배체제의 확립 과정에 대한 연구는 松浦茂, 2006, 『清朝のアムール政策と少數民族』, 京都大學學術出版會; 구범진, 2006, 「청대 ‘만주’ 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駐防體制’에서 ‘州縣體制’로」, 『東北亞歷史論叢』 14, 동북아역사재단; 송인주, 2018, 「清朝의 順治~康熙年間 黑龍江 유역 통합과정과 ‘吉林將軍體制’의_성립」, 『명청사학회』 50이 있다.

19 조선 측과 穆克登 측의 定界 문제에 관해서는 이화자, 『조청국경문제연구』, 2008, 집문당.

역 뿐만이 아니라 우수리강 유역, 송화강 유역까지 진출하면서 청과 충돌이 불가피하였다. 청조 조정은 1650년대 중순부터 흑룡강 하류와 알바진·네르친스크 등 흑룡강 상류 지역에 대한 군사 작전과 외교전을 병행하였고, 그 결과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과 1727년 카흐타 조약을 맺어 몽골과 외흥안령에 이르는 경계를 확정하고, 카흐타를 중심으로 한 변경교역체제를 확립하였다. 조공-책봉체제를 기반으로 한 조선과의 ‘丁丑約條 체제’²⁰, 그리고 ‘카흐타 互市 체제’를 기반으로 한 러시아와의 ‘네르친스크-카흐타 체제’가 확립되면서,²¹ 청대 만주는 티베트, 몽골, 운남, 新疆 등 다른 변경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변경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19세기가 되면서, 만주 지역을 둘러싼 상황이 매우 급변하게 되었다. 만주 지역의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러시아였다. 러시아 제국은 1849년 동시베리아총독 무라비요프와 해군 대위 네벨스코이의 주도 하에 다시금 흑룡강 유역으로 진출하였다. 네벨스코이는 흑룡강 하구에 니콜라예프스키를 건설하고 1850년 8월에는 사할린과 흑룡강 유역을 러시아의 영토라고 선언하였다.²² 1851년 5월까지 청은 러시아가 흑룡강 유역을 침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당시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동북 지역의 군사력을 증원으로 투입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감지한 이후에도 러시아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그 사이 1856년 러시아는 흑룡강

129~170쪽을 참고할 것

- 20 김근하는 1637년 丁丑約條가 청이 입관한 이후에도 조청 관계에서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이 청과의 외교 사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김근하, 2016, 『丁丑約條의 성격과 顯宗代 安秋元 사건』, 『조선시대사학보』 78)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청-러시아의 관계를 ‘네르친스크-카흐타 조약체제’라고 부른다면, 청-조선 관계는 ‘정축약조 체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21 박지배는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과 1727년 카흐타 조약이 획정한 국경선의 위치와 그 특징 그리고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청-러 관계를 “네르친스크-카흐타 국경체제”로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 체제 속에서 카흐타~아르군 강 구역은 청과 러시아에 의해 통제되지만, 러시아, 만주인, 몽골인, 카자크 인, 한인의 언어와 문화가 접촉하고 교환되는 특수한 공간이었다(박지배, 2019, 『러시아 대중국 국경의 형성과 절경성: 네르친스크-카흐타 국경 체제』, 『역사문화연구』 71).
- 22 김용구, 2018, 『러시아의 만주-한반도 정책사, 17~19세기』, 푸른역사, 82쪽.

하류로부터 우수리 강 이동지역의 동해 연안 지역에 연해주를 설치하였다.²³

러시아는 연해주 지배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측과 조약 체결을 추진하였다. 청측은 당시 러시아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러시아 측의 압박을 받았고, 1858년 黑龍江將軍 奕山은 무라비요프와 아이훈(愛琿, aihun) 조약을 체결하였다. 우수리 강과 두만강 이동을 청과 러시아가 상호 관리하기로 협약하여 사실상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사실상 인정해 주었고,²⁴ 1860년 11월, 제2차 아편전쟁 직후 러시아가 청과 영·프 사이를 중재해주었다는 명목으로, 양국은 다시금 북경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의 연해주 지배를 법적으로 명문화 하였다.²⁵ 이로써 청조는 길림장군의 관할 구역이었던 사할린을 비롯한 우수리강과 두만강 이동 지역의 광대한 영역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청조의 만주 지배의 위기는 내부적으로도 찾아 왔다. 앞서 서술한대로 청조는 정신적으로는 황실과 팔기의 근본을 지키고, 경제적으로는 초피·동주·인삼 등의 산물들은 독점하기 위하여 19세기까지 만주 지역을 封禁하여 한인들의 이주를 제한하였다. 하지만 19세기 중엽 河北과 山東 지역에 자연재해와 기근이 빈번해지면서, 산둥과 하북 지역의 民人들의 이주가 대거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 조선의 함경도 지역에도 대기근이 일어나면서, 길림 지역으로의 조선인들의 월경과 이주가 빈번해졌다.²⁶ 18세기 후반 이래로 청의 봉금정책은 이완되어, 청의 지방 당국은 內地 한인과 조선인들의 이주, 그로 인한 馬賊²⁷의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

23 김용구, 2018, 위의 책, p. 85.

24 『清朝條約全集』 1冊, 148~154쪽; 『中外舊約章彙編』 1冊, 86쪽.

25 『清朝條約全集』 1冊, 254~256쪽; 『中外舊約章彙編』 1冊, 149~154쪽.

26 김춘선, 2016, 「조선 후기 한인의 만주 범월과 이주」,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20~138쪽.

27 길림에서 馬賊 등 도적 문제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태평천국의 난을 전후로 한 시기였다. 『吉林通志』에 의하면, “길림의 도적문제(盜風)는 동남쪽에서 군을 일으킬 때 발생했으며, 同治年間보다 치열해진 적이 없었다.”(『吉林通志』 권52, 「武備志」)고 한다.

더군다나 1870년대까지 청조의 중앙조정에는 강남 지역의 태평천국의 난이나 하북의 염군 진압에 역량을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만주 변경 지역의 방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또한 19세기가 되면 만주 지역의 경제적 구조도 청의 지향점과도 멀어지게 되었다. 遼寧 지역의 경우 팔기의 토지가 다수 한인 소작인들의 지배로 넘어가게 되었고, 길림과 흑룡강 지역의 경우도 경작지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와 함께 ‘東北三寶’라고 불리던 貂皮·東珠·人參 등의 만주 지역의 토산품도 점차 수량이 고갈되어 갔다.²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 제국이 추구했던 八旗와 황실의 만주 지역에 대한 경제적 독점체제도 점차 와해되어 간 것이다. 청 제국으로서는 만주 지역에 대한 경제 정책도 바뀌어야 할 상황에 봉착하였다.

청조의 ‘무기력함’은 1870년대를 기점으로 전환하였다. 태평천국의 난이 진압되면서 청조는 본격적으로 변경 지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1870년대 발생한 新疆 回民 반란과 佐宗棠과 劉錦棠의 반란 진압 작전 및 ‘新疆省’ 설치, 그리고 曾紀澤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체결 등 서북 변경인 신강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²⁹들은 1857년 아이훈조약과 1860년 북경조약 당시 드러났던 청조의 ‘무기력한’ 對러시아 외교와 변경 정책에 대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³⁰ 특히 좌종당 등이 추진한 ‘신강성’ 설치 등의 강력한 변경 지역의 ‘內地化’ 정책은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만주 지역 변경지역 체제 개혁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 신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청조는 1880년대부터 만주에서도 지배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28 19세기 만주 지역에서의 한인 유민의 증가와 토지 개간의 급증으로 삼림이 파괴되면서, 貂皮 등의 전통적 산물의 수량이 고갈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흑룡강 지역에서는 1810년경 貂皮가 대략 5000장 이상 정도가 공물로 바쳐졌는데, 1882년에는 4,200장, 이후에는 3,155장으로 감소하였다(Robert H. G Lee, 1970,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25~127).

29 1870년대 신강의 회민 반란과 그에 대한 청조의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김호동, 『근대 중앙아시아의 혁명과 좌절』, 사계절, 1999를 참조할 것.

30 S.C.M. Paine, *Imperial Rivals: China, 1996, Russia, and Their Disputed Frontier*, Routledge, pp. 161~167.

기초 작업들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청조의 만주 지역에 대한 행정 개혁은 盛京(奉天)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1875년경부터 동북에서의 盛京將軍의 위상을 높여, 盛京將軍 衙門과 盛京五部로 분리되었던 盛京의 행정계통을 盛京將軍에게로 권한을 집중시켰다.³¹ 한편 당시 한인 유민의 만주로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만주 지역에 대한 봉금정책이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길림과 흑룡강 지역에 대한 개간사업이 단행되었다.³² 또한 1880년대 들어 길림장군 銘安과 欽差邊務大臣으로 길림에 파견된 吳大澂을 위시한 길림 당국에서는 당시 길림 지역에 만연하였던 馬賊과 金匪를 소탕하여 길림 지역에 대한 官府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한편, 길림-흑룡강 변경 지역의 통치 구조를 전환하는 邊務를 추진하였다. 1885년 曹廷杰의 만주 답사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다.

III. 1885년 曹廷杰의 청-러 변경 시찰 답사

1880년대 청조의 만주 지역 변경 지배 문제에서 급선무였던 것은 ‘國境’에 대한 파악이었다. 청조 역시 19세기 이전부터 만주 지역에 대한 지리학적인 조사를 실시했었다. 특히 강희 연간 러시아와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이루어지면서, 강희제는 길림 등지의 지방관원 뿐만이 아니라, 궁정의 예수회 수사들을 파견하여 만주 지역의 지리를 조사하도록 하였다³³. 그 결과 『皇輿全覽圖』 등의 지도와 『盛京通志』 등의 지리지가 간행되었고, 청조의 만주에 대한 지리 지식이 풍부해졌다. 하지만 강희 연간 이후 안정기가 되면서 청조의 만주 지역에 대한 지리학적인 지식은 정체되었고, 『乾隆 13배도』 같은 지도나

31 1870년대 성경지역에 대한 청조의 행정개혁에 대해서는 古市大輔, 1996, 「清代後期の盛京行政とその變容-高官人事における異動傾向からみた分析-」, 『史學雜誌』 105; 최희재, 2004, 「光緒初 清朝의 滿洲開發과 韓中關係의 再調整」, 『東洋學』 35를 참조할 것.

32 정혜중, 2006, 위의 책, 387~389쪽.

33 강희 연간 예수회 선교사들의 만주 지역 답사와 지도 제작에 대해서는 Mario Cams, 2017, *Companions in Geography: East-West Collaboration in the Mapping of Qing China(c.1685-1735)*, Brill을 참고할 것

『대청일통지』 등의 지리지가 대대적으로 발간되었으나, 이는 강희 연간의 정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였고, 청조의 이러한 지리 정보 부족은 1857년 아 이훈 조약과 1860년 북경조약 협상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³⁴

그에 따라 1880년 대 청조가 만주에서 우선적으로 착수한 작업은 러시아 및 조선과의 경계에 대한 ‘勘界’였다. 청조의 勘界를 주도적으로 실시한 사람은 吳大澂(1835~1902)이었다. 오대징은 江蘇省 吳縣 출신으로 1876년 進士에 급제한 이후 翰林院編修·陝甘學政 등의 직책을 거친 후, 1880년 청조 중앙에서 欽差大臣으로 吉林에 파견되었다.³⁵ 청조가 入關 이래 만주 지역 행정 업무에 漢人 관료를 特派한 것은 吳大澂이 처음이었는데, 이는 1860년대 태평천국 반란의 진압과정과 1870년대 신강 문제 해결 과정에서 曾國藩·左宗棠·李鴻章 등의 湘軍·淮軍 계열의 한인 관료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청조의 변경문제에 한인 관료들이 깊이 개입한 시대적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오대징은 1880년부터 청일 전쟁이 발발하는 1894년까지 길림에 머무르면서 러시아·조선과의 邊界 문제를 해결하는 이외에 移民實邊 정책을 제안하고, 湘軍과 淮軍의 조직을 모방하여, 吉林에 靖邊軍이라는 신식군대를 창설하고, 吉林器械局을 건설하여 靖邊軍을 뒷받침 하는 군수공업 발전을 주도하는 등 길림 지역에서의 ‘邊務’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와 국외에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니,³⁶ 이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34 1860년 북경조약 체결과정에서 러시아는 청이 제출한 지도에 대해서 신뢰성을 의심하면서 참조하기를 거부하였다(S.C.M. Paine, 1996, 위의 책, pp. 90~91).

35 『淸史稿』, 卷 450. 「吳大澂傳」, 12552쪽.

36 吳大澂에 관한 연구는 중국 학계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지만, 한국 학계에서는 김형종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김형종은 1881년 제1차 吳大澂의 길림 파견과 邊務 작업, 1886년 청-러 두만강 국경 勘界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다(김형종, 2013, 「吳大澂과 1880년대 淸-러 동북국경감계」, 『중국근현대사연구』 60).

과 동북 변경 경영에 대한 역사서를 편수하는 당시 시대적 배경도 있었고³⁷, 그의 직책이 辦理邊務文案, 즉 변경 업무에 대한 문건들을 정리하는 직책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는 만주 지역 지리와 역사에 대한 수집 작업의 결과를 1885년 『동북변방집요』로 간행하였다. 당시 三姓靖邊後路馬步全軍副將 葛勝林은 조정결과 교류하면서 그의 輿地 지식에 감명을 받았고, 1885년 4월에 조정결에게 “삼가 직분을 다하여 변장을 하고 하바로브스크 일대에 가서 러시아 경계의 정황을 몰래 탐방하라. 그 경계를 다니면서 저들(러시아) 병졸의 強弱·衆寡와 도로의 險易 및 어디어디가 저들의 요충지인지를 다니면서 유의하고 조용히 마음 속으로 알아오도록 하라.”³⁸는 密札을 내려, 흑룡강 하류와 우수리 강 유역의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1885년 5월 조정결의 만주 답사가 시작되었다.

조정결 일행은 1883년 5월 26일(양력 기준) 三姓에서 출발하여 6월 9일 송화강 어귀에 위치한 수르구(徐爾固)를 거쳐 러시아 접경지대로 들어갔다. 그 다음 흑룡강을 따라 동북쪽으로 우잘라, 더런을 거쳐서 흑룡강 하구까지 이르렀다. 이후 흑룡강 하구에서 다시금 흑룡강을 거슬러서 흑룡강 중류의 아이훈과 블라고베쉬첸크(海蘭泡)까지 답사하고 다시 흑룡강을 타고 내려와서 하바로브스크를 거친 뒤 우수리 강을 타고 내려와, 興凱湖를 거쳐 10월 15일 경 훈춘 일대에 도착하였다. 총 129일 동안 청-러 변계를 조사하고 훈춘에 도착한 조정결은 훈춘 일대를 조사하고 11월 6일 경 吉林에 도착하였다.³⁹(〈그림 2〉⁴⁰)

37 19세기부터 만주인 개혁 관료들과 漢人 經世學者들 사이에서 청조의 西北邊境에 대한 역사 지리연구가 진행되었고, 1840년 아편전쟁으로 서구열강의 침입이 본격화되면서, 魏源 등을 중심으로 청조의 武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북 변경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어, 위원은 『聖武記』 등을 통해 청의 동북 경략사를 서술하였고, 何秋濤는 누르하치 시기부터 도광 연간까지 청-러의 외교관계, 청의 동북 경략에 관한 사료들을 집대성 하여 『朔方備乘』으로 정리하였다.

38 曹廷杰, 「西伯利東偏紀要」, 叢佩元·趙鳴岐 編, 『曹廷杰集』 上, 62쪽.

39 叢佩遠·趙鳴岐, 「曹廷杰生平活動年表」, 『歷史檔案』, 1985, 98쪽.

40 叢佩元·趙鳴岐 編, 『曹廷杰集』 下, 565쪽의 지도를 번역, 편집하여 수록한 것.

〈표 1〉 『西伯利東偏紀要』의 118條 내용 개괄

조항	조사 내용
1~22	러시아령 흑룡강, 연해주의 여러 지역의 지리 정보
23~32	러시아령 흑룡강, 연해주의 軍備 정보
33~46	러시아령 거주하는 人民·行政·風俗·賦稅 등의 정보
47~49	러시아령의 電信 및 역참에 대한 정보
50~52	러시아령 만주 도시들과의 교통로
53~54	만주 지역을 둘러싼 러시아의 대외관계
58~60	흑룡강~우수리강 유역 거주 朝鮮人, 華人 정보
61~67	永寧寺 관련 정보
68~77	청대 흑룡강 정벌 관련 유적 정보
78~89	러시아의 金鑛 개발 정황
90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 건설 계획
91~93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禁令
94~103	러시아령 연해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보
104~109	흑룡강~우수리강 유역의 토착민(허저, 키야칼라, 킬러르 등) 정보
110~113	러시아령에 거주하는 華人的 인구와 경제 상황 정보

조정걸이 1885년 만주 답사에서 주로 무엇을 탐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답사를 마치고 저술한 『西伯利東偏紀要』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密札을 받들어 118조목의 사항을 살폈으며, 그들의 東海濱省(연해주)에서 점거한 吉林·黑龍江 2개 省의 地界·병사의 多寡·지리의 險要·道路의 출입·屯站 人民의 총 숫자·토산물과 賦稅의 대략적 정보·각국의 무역 상황·여러 토착민들의 숫자·풍속과 옛 사람들이 用兵한 흔적”⁴¹ 등 흑룡강과 우수리 강 유역의 다양한 방면의 정황들을 탐방하였다. 조정걸은 이러한 답사를 통해서 “오늘날 길림과 흑룡강 2개 省의 邊防 문제에서 변통할 만한 것들을” 찾고 “예전의 일을 전거로 삼으면서 사서의 누락된 것을 보충할 만 한 것들을 그 (보고서) 안에 넣어서 유사시에 회복을 도모하는 책략으로 삼고자”⁴² 하였다.

조정걸에게 1885년의 답사는 당시 청의 만주 지배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41 曹廷杰, 『西伯利東偏紀要』, 『曹廷杰集』上, 62쪽.

42 曹廷杰, 『西伯利東偏紀要』, 『曹廷杰集』上, 62~63쪽.

러시아라는 실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조정걸은 러시아의 병력, 군비뿐만 아니라, 식민지 도시의 건축과 상업, 전선 및 전신(鐵線), 輪船 등 근대 문물에 대해서도 탐색하였다. 특히 조정걸은 러시아인들의 금광 개발을 집중적으로 탐문하였다. 그는 『西伯利東偏紀要』의 81條부터 89條까지 러시아의 만주 금광 채굴에 대해서 상세히 적었다. 조정걸은 금광 채굴이 러시아의 만주 지배에서 중요한 핵심 전략 중 하나로 파악하였고, 후술하겠지만, 이에 대응할 전략적 차원에서 청조에서도 길림과 흑룡강 지역의 광산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조정걸이 당시 러시아 제국이 건설을 계획하고 있었던 시베리아 철도 건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폈다는 것이다.

탐문하여 들으니, 러시아 인들은 철도를 닦아서 중국과 통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 가진 의도는 카흐타를 거쳐 張家口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지만, 몽골의 왕이 윤택치 않아서, 이 논의는 잦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의 논의는 하이러얼을 거쳐서 버두너를 경유하여, 봉천과 조선에 이르는 것이고, 그 다음의 논의는 흑룡강 동쪽 연안을 따라서 슈르구에 이르러, 송화강 북쪽 연안을 따라 하바로브스크에 이르거나, 우수리 강 동쪽 연안을 따라 블라디보스토크로 통하는 것입니다. 아마 2~3년 내에는 공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살피건대 러시아 인들은 이 공사가 끝나면 경제와 상업에서 얻는 이익이 무궁할 것이며, 병사의 진퇴 역시 벼락이 치고 바람이 휘몰아치듯 할 것이니, 일본과 조선도 안정되지 못할 것입니다.⁴³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착공이 시작된 것은 1891년이었지만, 이미 러시아 내부에서는 1870년대부터 적극적인 시베리아 식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시베리아로 통하는 최초의 철도 노선인

43 曹廷杰, 「西伯利東偏紀要」, 『曹廷杰集』上, 110~111쪽.

예카테린부르크-츄메니 노선이 1883년 기공되어 1885년 완공되었다.⁴⁴ 조정걸의 예측대로 1890년대~1900년대 시베리아~만주 철도의 공사와 착공이 진행되면서, 러시아의 만주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확장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러시아의 만주 진출에서 ‘철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질 것을 조정걸은 이미 만주 답사의 견문을 통해서 간파한 것이다.

1885년의 만주 답사는 조정걸에게 그동안 사료를 통해서만 파악해 왔던 청조,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동북변경의 역사를 현실적으로 실증할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글을 들어가면서 소개했던 흑룡강 하류 特林的 永寧寺碑에 대한 답사도 그러한 ‘실증’ 작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조정걸은 흑룡강 유역과 우수리강 유역을 답사하면서, 영녕사비 뿐만이 아니라, 청조가 흑룡강~우수리 강 유역으로 영향력으로 확장할 당시의 관련 지역들에 대해서도 답사하였다. 예컨대 三姓 지역의 達卜庫屯 지역에 대해서는 “三姓 남쪽의 130리 떨어져 있는 松花江 남쪽 강안의 城子 지방에 옛 城이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강을 따라 동쪽으로 10리를 가면 達卜庫屯이 있다. 天命 元年, 大臣 암바 피양구·후르한이 흑룡강으로부터 군사를 끌고 나와 塔庫路를 복속시켰고, 崇德 7년에는 샤르후다와 후마라가 塔圖庫屯을 정복했는데, 이 지역에 해당한다.”⁴⁵ 라고 비정하였고, 하바로브스크의 키야카라 지역의 경우는 “하바로브스크에서 정동쪽으로 1000여 리 해안가의 키야카라 지역에는 英門河가 있고, 그 지역은 ‘어허(額赫)’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國初에 여러 차례 정복한 동해 와르카 부의 ‘어허쿨룬(額赫庫倫)’이 이곳이다.”⁴⁶라고 실증하는 등, 청이 정복했던 지역들을 고증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조정걸은 그가 길림에 파견된 이후 문헌들을 통해 수집하였던 청대의 동북강역의 역사에 대해 실증할 기회를 가졌고, 아울러 1860년 북경조약으로 러시아의 영역이 된 우수리 강 이동의 청조의 옛 영역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

44 大橋與一, 1974, 『帝政ロシアのシベリア開發と 東方進出過程』, 東海大學出版會, 372쪽.

45 曹廷杰, 「西伯利東偏紀要」, 『曹廷杰集』上, 102~103쪽.

46 曹廷杰, 「西伯利東偏紀要」, 『曹廷杰集』上, 104쪽.

실증 자료들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와 같이 1885년 만주 답사를 통해서 조정걸은 러시아의 東進에 대한 여러 정보와 청조의 옛 '版圖'에 대한 실증적 정보들을 확보하였다. 1884년 9월 길림에 도착한 조정걸은 만주 답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청조의 동북 변경 방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16개 조목으로 정리하여 조정에 상주한다. 이것이 『條陳十六事』인데, 다음 장에서는 『條陳十六事』를 통해 조정걸의 만주 지역 개발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겠다.

IV. 1886년 曹廷杰의 16개조 만주 개혁론

1886년, 조정걸은 北京의 청조 조정에 가서, 자신이 살핀 러시아령 만주 지역의 정세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그리고 慶親王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견문을 바탕으로 한 16개 조항의 만주 변경 지역에 관한 개혁안을 서술하였다. 이 개혁안은 『條陳十六事』란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 두만강 分界와 관련된 첫 번째 조목은 分界大臣 吳大澂에게 전해졌고,⁴⁷ 나머지 15條의 개혁안은 吉林將軍 希元에게 전달되었다.⁴⁸ 조정걸의 『條陳十六事』의 대략적 내용은 <표 2>⁴⁹와 같다.

47 曹廷杰, 「條陳十六事」, 『曹廷杰集』 下, 372쪽. 조정걸에 의하면 16개 조 가운데 1條는 '分界大臣'에게 드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分界大臣은 吳大澂일 가능성이 높는데, 오대징은 1886년 두만강 감계 문제로 다시 길림에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오대징이 러시아와의 감계과정을 서술한 『皇華紀程』에는 1886년 2월 15일 吉林에서 曹彝卿別駕(曹廷杰)이 와서 손수 영녕사비 탁본을 보여주었다고 기재되었는데, (吳大澂, 2014, 「皇華紀程」, 『中國邊疆研究文庫 初編·東北邊疆卷』 7, 271쪽) 두만강 감계에 대한 의견도 그 때 오대징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8 曹廷杰, 「條陳十六事」, 『曹廷杰集』 下, 372쪽.

49 <표 2>의 내용은 曹廷杰, 「條陳十六事」, 『曹廷杰集』 下, 373~388쪽의 내용을 간추려 요약한 것이다.

〈표 2〉 『條陳十六事』의 내용 요약

조목	대략적 내용
1	두만강(圖們江)은 中國에 귀속되어야 한다.
2	朝鮮(高麗)은 自存할 수 없으니, 保護 하에 두어야 한다.
3	러시아가 비록 연해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나, 병력 배치가 부족하니, 러시아가 병력을 배치하기 전, 동삼성의 병력으로 요지를 막고 길을 나눠 공격하여 연해주의 땅을 회복해야 한다.
4	동삼성의 流民들이 많으니, 이들을 編伍하여 병사로 징발하여 써야 한다.
5	동삼성의 練兵을 엄격히 실행하여 군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6	길림과 흑룡강 2개省은 빈 땅이 매우 많으니, 分界하여 屯墾해야 한다.
7	길림과 흑룡강 2개省은 金鑛이 매우 많으니, 법을 두어 開採하여 富國強兵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8	러시아에서 무역하는 華人들에게 免稅하여 商路를 넓혀야 한다.
9	三姓에서의 貂皮공납은 유명무실 해졌으니, 울린에 대해 하사하는 것을 정지하여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
10	길림과 흑룡강은 동전을 제조하기가 협소하니, 銀錢을 주조하면 民用을 편하게 할 수 있다.
11	吉林機器局의 경비가 매우 적으니, 마땅히 예산항목을 계획하여 제조를 늘려야 한다.
12	松花江에서 輪船을 이용하여 轉運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13	黑龍江將軍의 治所를 치치하얼에서 아이훈으로 옮겨야 한다.
14	吉林將軍의 治所를 吉林에서 닝구타 혹은 알추카로 옮겨야 한다.
15	‘타이니칸(tai nikan, 臺尼堪, 站丁)’ 제도를 회복해야 한다.
16	西山灰窟은 풍수상 장애가 되니, 비용을 써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조정걸이 16개 조 개혁안의 핵심요지는 러시아와의 불확실한 邊界 문제를 확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1조), 청조가 기존에 만주에서 시행하고 있던 군사·경제·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러시아와 대치하는 시대 상황에 변화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조정걸은 당시 吉林 지역의 流民 문제에 관심을 두면서,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4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9세기 청조의 封禁이 완료되면서, 山東과 河北에서 漢人 流民의 이주가 대거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태평천국의 난 전후로, 이들 流民들이 馬賊·金匪 등 비밀결사를 조직하면서 만주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 이에 대해 조정걸은 流民들의 만주 지역 정착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이들을 編伍하고 병력 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동삼성의 流民들은 매우 많으니, 이들을 불러 모아 編伍하여 전쟁 시 특별히 쓰는 용도로 갖춰야 합니다. (.....) 苗와 捻이 횡횡하여 산동의 민인들이 난을 피

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金場이 열리니 流民들이 많아져서, 金場 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수천~수만, 혹은 수십만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방관들은 이 형세와 이익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면 국가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모르고 도리어 이들을 ‘金匪’라는 명목을 더하여, 封禁해달라는 청을 하니, 결국 유민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서, 마음이 동요하여 匪賊이 되어, 백주대낮에 약탈을 행하고,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 진실로 虞詡의 朝歌之法을 본받아서 망명한 자를 編伍하고 공명정대하고 훈련에 정통한 자를 統帥로 선발하여야 합니다. 설령 일단 사변이 있더라도 정규군으로 이들 무리를 감독하여 전쟁 시 특별히 쓰면 됩니다. 이들은 도로에도 익숙하고 언어 역시 통하니 명석하면 책략과 대응책을 갖출 수 있고, 어둡더라도 소식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역시 兵家에서 낮게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⁵⁰

또한 조정결은 길림과 흑룡강 지역의 屯墾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6조). 柳條邊 밖의 길림과 흑룡강 지역은 청 황실의 발상지라는 명목으로 封禁이 실시되는 지역으로, 19세기까지만 해도 駐防 지역 인근의 官庄 지역을 제외하면 개간이 금지되었다. 건륭 후반기 京師八旗의 생계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雙城堡와 버두너(伯都訥) 지역에 京師八旗를 이주시켜 屯墾케 하였으나, 매우 제한적이었다.⁵¹ 그러나 1870년 대 이후 만주 지역의 邊防對策이 대두 되면서, 그 일환으로 길림과 흑룡강 지역으로의 ‘移民實邊’이 추진되었다. 1881년 청 황실의 南荒圍場이 설치된 훈춘 지역에서는 오대징 등의 건의로 招墾局이 설치되고, 漢人들을 이주시켜 개간하는 작업이 시행되었다.⁵² 조정결의 ‘屯墾’ 대책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왔다.

50 曹廷杰, 「條陳十六事」, 『曹廷杰集』 下. 376쪽

51 가경 연간 雙城堡와 버두너의 개간에 대해서는 薩靈阿의 『吉林外記』 권10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특히 雙城堡 지역으로의 旗人 이주 정책과 雙城堡 도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Suang Chen 2017, *State-sponsored inequality the banner system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northeast China*,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를 참고할 것.

52 김춘선, 2016, 「청의 이민실변 정책과 한인촌락의 형성」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

길림과 흑룡강 2개 省은 빈 땅이 매우 많으니, 마땅히 分界하고 屯墾하여 邊境을 채우고 오랑캐를 제어해야 합니다. (.....) 지금 길림과 흑룡강 2개 省은 러시아와 접해 있는데, 빈 땅을 헤아려 보면 길림의 경우는 10에 4~5이고, 흑룡강의 경우는 10의 6~7이니, 屯墾을 실시하면 러시아인들이 넘보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 왕조는 원래 興京 남쪽에서 발흥하였는데, 그 땅은 鴨綠江과 서로 가깝고, 朱果가 발상한 곳 역시 長白山의 동쪽 오도리 城이니, 이곳이 실로 根本이 있는 곳입니다. 길림과 흑룡강 2개 省은 건국 초기에 여러 부락들을 복속시킨 지역에 불과하니, 모두 만주 일파의 땅은 아니고, 황실의 땅도 아닙니다. 이전에 興京 이남의 땅에는 安東縣과 寬甸縣이 설치되었고, 오도리 성에는 敦化縣이 설치되었습니다. (길림과 흑룡강 2개 省은) 토지가 백성을 부양할 만하고, 賦稅가 나라를 부유하게 할 만하여 이로온 점만 있고, 해가 될 점은 없어서, 효과가 징수를 견딜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개 省의 빈 땅은 개간하지 말라고 하니, 어찌 근본이 되는 지역의 地利는 모두 써도 되면서, 근본이 되는 지역 부근의 땅은 꼭 邊境의 황무지처럼 내버리려고 합니까?⁵³

조정걸은 청의 根本之地인 흥경 이남과 長白山의 오도리 부 지역도 이미 縣이 설치되어, 封禁 정책이 무너진 상황에서 길림과 흑룡강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간 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旗地의 경우 실소유주인 旗에 환급하여, 인구수를 헤아려 토지를 주고 경작하게 하고, 그 나머지 땅은 民兵을 모집하여 개간하게”⁵⁴ 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러시아 경계 안으로 넘어간 華人들을 招募하여 관리를 두고 三姓 부근의 많은 황무지를 개간을 하자고도 주장하였는데, 이는 그가 청-러 邊界 답사 과정에서 러시아령 흑룡강~우수리 강 유역에 많은 華人 流民들을 목격한 데서 비롯된 책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51~152쪽.

53 曹廷杰, 「條陳十六事」, 『曹廷杰集』下, 378~379쪽.

54 曹廷杰, 「條陳十六事」, 『曹廷杰集』下, 379쪽.

조정걸이 屯墾과 함께 중요시 여긴 대책이 바로 금광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조정걸은 변계 답사 과정에서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금광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 『西伯利東偏紀要』에 러시아령 만주 지역의 각 지역마다 금광의 숫자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조정걸이 금광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한 동기는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국가에서 금광 개발을 장려하고 그것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러시아가 만주 지역의 금광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다. 특히 조정걸은 청-러 변계에 존재하고 있던 ‘金匪’들의 존재를 매우 의식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流民 출신들로 길림·흑룡강 지역의 금광을 사사로이 채굴하면서 러시아와도 몰래 내통하는 존재들이었다. 조정걸은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金匪들의 발호를 막고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의 경제적 잠식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금광 개발’에 찾고 있는데, 이는 『條陳十六事』에도 잘 드러나 있다.

길림과 흑룡강 2개 省에는 金鑛이 매우 많으니, 법을 두어 채굴하고, 싸게 사들이고 비싸게 팔아서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강성하게 하여야 합니다. (.....) 지금 천하의 광산 지역은 셀 수 없지 않지만, 유독 길림과 흑룡강 2개 省에는 金鑛이 많습니다. 또한 이곳들은 모두 러시아와의 경계와 매우 가까우니, 만일 법을 두지 않고 채굴한다면, 러시아인들이 마음이 동요하거나, 혹은 간단한 민인들이 모여들게 되니, 이는 또한 도적에게 의지하면서, 도적질할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인들이 黑河에 흩어져 사는 金匪들을 보냈는데, 그 때에는 영국과 반목하면서 영국인들이 우리와 약조하여 合攻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 지금 이 계책을 받아들여서 民인들이 채굴하게 하고 청렴하고 사심없는 관원을 뽑아 防軍을 감독하여 금광을 지키게 하십시오. 만약 民인들이 金 1兩을 채굴하면 官에서는 銀 8兩 혹은 10兩 혹은 部에서 만든 中錢票帖 30여串으로 바꿔주십시오. 章程을 엄격히 세워 몰래 캐내서 유출되는 것을 막고, 民들에게서 바꾼 금은 錢당 1圓씩 하는 小金錢으로 주조하거나, 혹 元당 1兩씩 하는 大金餅을 주조하고, 兩당

14~15換 혹은 16換으로 정하여, 內地의 旗營·綠營 및 練勇·海防 각 군의 軍餉을 공급케 하십시오.⁵⁵

조정결은 民人들로 하여금 길림과 흑룡강 지역의 金鑛을 채굴하게 하되, 국가가 章程과 병력을 두어 그것을 감독하는 일종의 官督商辦 방식의 금광 개발을 주장하였다. 또한 금광에서 채굴한 금을 청조의 각 군대에 공급하여 軍餉으로 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民人 가운데 金을 은닉하거나, 관리 가운데 간사한 짓을 하는 자는 죽이고, 불시에 관원을 파견하여 利弊를 조사하게” 하는 등의 금광에 대한 관리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조정결은 또한 청조가 길림 흑룡강 지역의 통구스계 邊民들에게 실시하고 있던 ‘貢貂-烏綾(울린) 제도’를 정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조는 順治~康熙 연간 흑룡강-우수리강 유역에 거주하는 여러 통구스계 邊民들을 복속한 이후, 이들에게 매년 담비가죽을 공납 받고, ‘울린(烏綾, 賞賜의 의미)’을 하사하였다.⁵⁶ 청조에 복속한 邊民들은 매년 닝구타, 三姓, 더런 등 청조가 지정한 곳으로 와서 담비가죽을 공납하고, 그 품질에 따라 의복이나 기물 등의 ‘울린’을 받았다. 이는 청조가 100년 이상 흑룡강 하류 유역의 邊民들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황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품목이자 고가품이었던 담비가죽을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었던 제도였지만 19세기 이르러, 이들 邊民들이 공납하는 가죽의 수량과 품질이 저하되고, 1860년 북경보약 이후 변민들의 거주지 대부분이 러시아의 영토 안에 편입되면서 유명무실화 되었다. 조정결도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貢貂-烏綾’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三姓에서 담비가죽을 공납하던 각 부족들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니, 울린을 상으로 내리는 것을 정지하여 낭비를 절약해야 합니다. 건국 초기에 東海 諸部를 복속시키고, (.....) 매년 닝구타에 이르러 담비가죽 2장을 공납하게 하거나,

55 曹廷杰, 「條陳十六事」, 『曹廷杰集』下, 380~381쪽.

56 송인주, 2018, 위의 논문, 152쪽.

혹은 3년에 1번씩 공납하게 하였습니다. (.....) 雍正 7년, 三姓副都統을 두고, 담비 가죽 공납의 일을 三姓에 귀속시켜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例를 정하여, 해마다 공납하는 자들은 1차례 연회를 베풀어주고, 3년에 1번씩 공납하는 자들은 3차례 연회를 베풀어주며, 이들에게 모두 衣冠과 기물을 주었는데, 이를 ‘올린’이라고 불렀습니다. (.....) 러시아가 변경을 침범한 이래로 여러 부락들은 러시아 경계로 들어갔고, 貢道는 단절되어, 저쪽은 오지 못하고 우리는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담비가죽을 바치는 제도는 이미 虛文이 되어버렸습니다. (.....) 담비가죽을 바치는 일이 없으면 올린을 하사하는 일도 없어야 하니, 이제 청컨대 올린을 하사하는 제도를 정지하고, 華商을 따라서 공물을 바치는 자가 있으면, 명부를 만들어서 部에 보고하고, 명목에 따라 상을 내리게 하되 그 나머지 쓸모없는 올린의 경우는 奉天에서 값어치를 치러 담비가죽을 사들여서 御용으로 공급하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다시 남은 경비는 빈궁한 旗丁들이 길림과 흑룡강 2개 省에서 경작할 때 쓸 소와 씨앗을 공급하는데 써서, 屯墾을 책임지게 하십시오.⁵⁷

위와 같이 조정결은 東海諸部가 이미 러시아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공물을 바치는 길도 막히게 되었기 때문에, ‘貢貂-烏綾’ 제도는 ‘사문화’되어버린 점을 지적하면서, 올린 제도의 폐지를 적극 주장하였다. 또한 올린에 들어가는 국가의 비용을 일부 전환하여, 길림과 흑룡강 2개 지역에서의 개간 사업에 투입할 것도 제시하고 있다. 이 조목에서도 수렵 중심으로 운영되던 청조 치하의 길림·흑룡강 지역의 경제체제를 농업 경제 중심으로 대폭 전환시키려는 조정결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그 외에도 조정결은 길림과 흑룡강 지역에서 銀錢을 제조하여 보급하고(10조)⁵⁸, 松花江에서 輪船을 도입하여 運輸를 개선하자(12조)⁵⁹는 등 만주 변경

57 曹廷杰, 「條陳十六事」, 『曹廷杰集』 下, 383쪽.

58 曹廷杰, 「條陳十六事」, 『曹廷杰集』 下, 384쪽.

59 曹廷杰, 「條陳十六事」, 『曹廷杰集』 下, 385~386쪽.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개혁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의 『條陳十六事』는 기본적으로 ‘邊防’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邊防’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서 기존의 청조가 취하고 있던 사회·경제 정책의 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청조는 전통적으로 만주 지역에 대해서 ‘수렵·채취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통치하려고 하였고,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封禁정책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 기조는 19세기 중엽 대내적으로는 漢人 流民의 대대적인 유입,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확장 정책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조정걸을 비롯한 당시 청조 치하의 한인 지식인들에게 만주 지역은 청 황실의 ‘根本之地’일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외세로부터 지켜야 할 국민국가 ‘中國’의 ‘東北邊疆’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東北邊疆’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 황실이 만주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전통적 변경지배체제를 전환시켜서 근대국가의 변경지배체제에 알맞은 체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조정걸은 『條陳十六事』를 통해서 봉금체제를 해제하여, 길림, 흑룡강 유역의 流民들의 존재를 인정하여 병력 자원으로 삼을 것, 屯墾 등의 토지 개간 사업을 확대하여 농업 경제로 전환할 것, 金鑛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國富를 증대할 것, 東海諸部에 대한 ‘工貂-烏綾’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의 만주 지역의 사회경제적 개혁을 적극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조정걸이 『條陳十六事』에 조선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것(2조)도 상당히 흥미롭다. 조선을 비롯한 한반도의 국가들은 만주의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만주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서는 한반도의 정세도 안정적이어야 한다. 조선은 1637년 丁丑約條를 체결한 이후로 조공-책봉체제를 매개로 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876년 일본과 丙子修好條規를 체결하면서 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점차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청은 1882년 壬午軍亂을 계기로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하였고 1884년에는 甲申政變을 계기로 袁世凱를 통해 조선의 내정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조정걸의 조선에 대한 대책도 이러한 상황 속에 나왔다.

朝鮮(원문은 高麗)는 自存할 수 없으니, 마땅히 保護를 가하여 중간에서 기회를 엿보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천하에는 道가 있고, 국가를 지키는 것은 四夷에 있습니다. (.....) 조선과 같은 경우는 輔車와 같이 서로 의존하니, 멀게는 畿輔의 문호가 되고, 가깝게는 三陵 지역의 肘腋이 되니, 반드시 藩封을 지켜내서 방어의 밀천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류큐를 버리고 나서부터, 일본인이 결국 동쪽에서 기회를 엿보게 되었고, 安南과 緬甸이 다시 떨어져 나갔으며, 러시아가 북쪽에서 엿보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손바닥만큼 조그마한 小國이 어찌 스스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 만약 保護之法을 두지 않는다면, 조선은 중간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형세상 우리를 반드시 노략질할 것입니다. 만일 安南과 緬甸과 같은 변란이 생긴다면, 畿輔는 동요를 피하지 못할 것이고, 三陵 지역도 동요할 것이니, 진실로 肩亡齒寒의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保護之法으로 조선에 긴밀히 도와서 급히 內政을 바로잡게 하고, 다시금 圖們江의 경계를 구획하여 러시아가 공격해 오는 길을 끊어야 합니다.⁶⁰

조정걸은 조선은 청의 만주지역 방위뿐만이 아니라 北京 일대의 방위에도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 ‘保護之法’을 통해 내정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조선 방면을 책임지고 있었던 李鴻章의 北洋軍府 막료들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청은 1882년부터 1884년까지 조선에 대해서 청의 ‘屬國’임을 강조하면서 ‘제국주의적인’ 정책을 폈다.⁶¹

또한 조정걸은 두만강을 넘어서 私墾을 행하는 조선인들에 대해 ‘保護之法’을 통해서 청의 戶口로 들이거나, 조선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을 주장하였다. 월경 조선인에 대한 문제는 조정걸이 길림에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길림 당국의 문제가 되어, 1880년대 초반 당시 吉林將軍이었던 銘安과 欽差大臣

60 曹廷杰, 「條陳十六事」, 『曹廷杰集』 下. 374~375쪽

61 Kirk, W. Larsen은 1880년대 청조가 서구식 제국주의를 학습하여 조선에 적용하려고 했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비공식적 제국주의(informal imperialism)’으로 명명하였다(Kirk, W. Larsen, 2008,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 Qing imperialism and Choson Korea, 1850-1910*,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吳大澂 등은 두만강을 넘어 정착한 조선인들을 ‘歸化入籍’하고 ‘薙髮易服’ 시켜서 청의 판도로 들이고 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선으로 刷還할 것을 주장하였다.⁶² 당시 두만강을 건넌 조선인들은 조선에서의 기근 등을 피해온 것이기에 청의 이러한 歸化入籍 및 薙髮易服 정책은 강제성을 띤 정책이었다. 조정걸의 주장도 역시 銘安과 吳大澂의 그것을 답습한 것이었고, 歸化入籍과 薙髮易服을 기조로 하는 청의 월경 조선인 정책은 청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어, 조선과의 끊임없는 영토 분쟁이 일어났다.

위와 같이 당시 조정걸을 비롯한 청의 관료들에게, 만주와 인접한 조선과의 관계 설정은 만주 지역의 지배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조정걸 역시 『條陳十六事』의 한 조목을 떼어내서 ‘조선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만주 지배에 있어서 조선 문제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관심은 이후 吳祿貞의 『延吉邊務報告』나 宋教仁의 『間島問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조정걸이 위와 같은 개혁안들은 당시 길림-흑룡강 지역 당국에서도 중요시하던 사안들이었다. 특히 금광 등 광산 개발을 통한 길림-흑룡강 지역의 경제 구조 전환 작업은 189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길림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890년대 들어 청조 당국은 흑룡강의 漠河 金鑛, 길림의 夾皮溝 金鑛, 三姓 지역의 金鑛, 延吉의 天寶山 銀鑛 등 다양한 광산을 官辦, 혹은 官督商辦, 외국과의 합작 방식으로 개발하면서, 경제 구조의 전환을 꾀했고, 이 지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조정걸 역시 1896년 흑룡강 지류인 都魯河 지역의 금광을 개발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였다.⁶³ 이와 같이 조정걸이 1885년 만주 답사를 통해 도출한 만주 지역에 대한 邊政 개혁안은 1890년대 길림-흑룡강 당국의 만주 변경 지역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62 堀瀨進, 「中國東北統治の變容」, 『近代東北アジアの誕生』, 278~282쪽.

63 이와 관련해서는 張鳳鳴·付傑·劉剛, 1990, 「曹廷傑和都魯河金鑛」, 『北方文物』을 참고할 것.

V. 맺음말

다시 이야기를 흑룡강 하류 유역에 서 있었던 永寧寺碑 쪽으로 돌려보자. 조정걸이 탁본을 해 간 이후 영녕사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영녕사비는 결국 청이나 근현대 중국 국민국가의 유물이 되지 못하였다. 두 기의 영녕사비는 이후 흑룡강 하류 特林的 절벽에 서 있다가 1891년 러시아인에 의해 배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졌고,⁶⁴ 현재는 블라디보스토크 시의 연해지방 국립 아르세니예프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⁶⁵

본고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영녕사비를 언급한 이유는 영녕사비의 운명과 19세기 만주 지역의 정세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중앙유라시아 사학자 오웬 라티모어가 말한 것처럼, 19세기 만주 지역은 극동의 화약고와 같은 상태로 여러 국민국가들이 치열한 영토 경쟁을 벌이는 지역이 되었다. 19세기 중엽까지 이 지역의 영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청 제국은 서구의 충격으로 그 영향력이 약해졌지만, 전통제국에서 국민국가로 탈바꿈하는 과정 속에서 1912년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이 지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1880년대 전후로 만주 지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는 여러 개혁들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청조의 노력들은 러시아와 일본 등의 팽창 속에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만주 지역은 청조의 멸망 후 봉천 군벌 시대와 만주국 시대를 겪으면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 중국 내지의 역사와는 또 다른 역사적 흐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주 지역은 현재 ‘동북 3省’이라는 명칭으로 현대 중국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19세기~20세기 초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형성 과정에 대해서 연구한 S.C.M 페인은 중~러 국경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긴

64 愛新覺羅 烏拉熙春, 2014, 위의 책, 246쪽.

65 愛新覺羅 烏拉熙春, 2014, 위의 책, 240쪽.

‘무장된(militalized)’ 국경선임을 강조했다.⁶⁶ 만주 지역은 중-러 동부 국경이 걸쳐져 있는 변경 지대인데, 현대 중국의 다른 변경 지대인 신강이나 티베트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본고에서는 그 기원을 19세기, 특히 1880년대 청조의 만주 지역 정책의 전환에서 찾고자 하였다. 1880년대 청조의 ‘동북변강’ 만들기 작업이 근현대 중국 국민국가 성립 과정에서 만주 지역에 대한 일종의 ‘복원력’을 제공한 것이다.

1885년 조정걸의 만주 답사는 그러한 근현대 중국이라는 국민국가의 ‘복원력’의 밑천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청조 중앙정부가 조정걸이 제시한 16개 조항의 정책들을 완전히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만주 지역, 특히 길림 지역의 경우는 청 황실이 祖法에 따라 신성히 여긴 지역이고, 황실과 旗人들의 경제적 이권이 걸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지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그로 인해 만주 지역에 중국 내지와 동일한 행정체제인 ‘東三省’ 체제가 실시된 것도 1907년에 이르러서였다. 하지만 이미 1880년대부터 銘安, 希元 등의 만주 지역의 총책임자들과 오대징이나 조정걸 등의 한인 관료들이 만주 지역에 대한 청조의 지배체제의 구조를 바꾸려는 작업들을 추진하였고, 그것이 결국 1907년 ‘東三省’ 체제 확립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1885년 조정걸이 현지 조사하면서 얻은 만주에 대한 역사지리적 지식은 『西伯利東偏紀要』와 『東北邊方輯要』, 『東三省輿地圖說』의 저작들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조정걸의 저작들이 근현대 중국의 ‘東北邊疆’에 대한 역사 연구와 역사서술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조정걸의 만주 지역 역사지리 연구는 이후 중국 근현대 역사가들에게 만주 지역을 중국의 ‘동북변강’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 당위성을 부

66 S.C.M. Paine, 위의 책, p. 1.

여하였고, 그의 연구는 金毓紱, 傅斯年의 동북 역사 연구로도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1885년 조정결의 만주 답사는 19세기 이후 청조에서 중화민국, 더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중국 근현대 국민국가가 만주라는 변경지역을 ‘영토’로서 새롭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점유를 어떻게 시도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학적 연구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집

- 『光緒朝東華錄』, (清) 朱壽朋, 1958, 中華書局
- 『吉林省檔案館藏清代吉林檔案選編』, 2006, 吉林省檔案館 編, 國家圖書出版社
- 『吉林外記』, (清) 薩英額 編, 1974, 臺北: 成文出版社
- 『吉林通志』, (清) 長順 修, 李澍田 主點, 1986, 吉林文史出版社
- 『東三省政略』, 徐世昌 編, 1989, 吉林文史出版社
- 『柳邊紀略』(清) 梁賓, 1985, 『遼海叢書』 1, 沈陽: 遼瀋書社
- 『滿洲原流考』(清) 阿桂 等 贊, 孫文良, 陸玉華 點校, 1988, 遼寧民族出版社
- 『朔方備乘』, (清) 何秋濤, 2002, 上海: 上解古籍出版社
- 『魏源全集』, (清) 魏源, 2004, 岳鹿書社
- 『曹廷杰集』上·下, 從佩元·趙鳴岐 編, 1985, 中華書局
- 『籌備夷務始末』, (清) 宝璽等纂輯, 영인본
- 『中外舊約章彙編』, 1957, 北京: 三聯書店
- 『清史稿』, 中華書局 編, 1977, 北京: 中華書局
- 『清實錄』, 中華書局 編, 1986, 北京: 中華書局
- 『清朝條約全集』, 田濤 主編 影印本, 2000, 黑龍江人民出版社
- 『皇華紀程』, 清 吳大澂, 2014, 『中國邊疆研究文庫 初編·東北邊疆卷』 7, 黑龍江教育出版社
- 『欽定盛京通志』 王河 外 共編, 1965, 文海

김형중 역편, 2018, 『1880년대 조선-청 국경회담 관련 자료 선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間宮林藏, 村上貞助 編, 2008, 『東韃地方紀行 他』, 平凡社

2. 연구서

- 김선민 외, 2013, 『동아시아의 근대, 그 중심과 주변』, 소명출판
- 김용구, 2018, 『러시아의 만주·한반도 정책사, 17~19세기』, 푸른역사
- 김춘선, 2016, 『북간도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김형중, 2018,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호동, 1999, 『근대 중앙아시아의 혁명과 좌절』, 세계철

이화자, 2008, 『조청국경문제연구』, 집문당

高 月, 2012, 『清末東北新政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佟 冬 主編, 1999, 『沙俄與東北』, 吉林文史出版社

李治亭, 2003, 『東北通史』, 中州古籍出版社

馬大正, 2013, 『中國邊疆經略史』, 武漢大學出版社

劉元圖, 1990, 『早期中俄東段邊界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阿地力艾尼, 2011, 『清末邊疆建省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趙令志, 2001, 『清前期八旗土地制度研究』, 民族出版社

趙英蘭, 2010, 『清代東北人口社會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韓 狄, 2011, 『清代八旗索倫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大橋與一, 1974, 『帝政ロシアのシベリア開發と東方進出過程』, 東海大學出版會

松浦茂, 2006, 『清朝のアムル政策と少數民族』,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愛新覺羅 烏拉熙春, 2014, 이상규·다카구치 게이코 역주, 『명나라 시대 여진인-‘여진역어’에서 ‘영영사기비’까지』, 경진출판

左近幸村 編, 2008, 『近代東北アジアの誕生』, 北海道大學出版會

周藤吉之, 1944, 『清代滿洲土地政策の研究: 特に旗地政策左中心として』, 河出書房

Christopher Mills Isett, 2007, *State, peasant, and merchant in Qing Manchuria, 1644-1862*,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David A. Bello, 2016, *Across Forest, Steppe, and Mountain: Environment, Identity, and Empire in Qing China's Borderlan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E. G. Ravenstein, *The Russian on the Amur: its discovery, conquest and coloniza-*

- tion, 陳霞飛 譯, 1974, 『俄國人在黑龍江』, 北京: 商務印書館
- James Forsyth,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Russia's North Asian Colony 1581-1990*, 정재겸 번역, 2009,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서울출판사
- James Reardon-Andreson, 2005, *Reluctant Pioneers: China's Expansion Northward, 1644-1937*, Stanford University press
- Jonathan. A Schlesinger, 2017, *World Trimmed with Fur: Wild Things, Pristine Places, and the Natural Fringes of Qing Ru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irk. W. Larsen, 2008, *Tradition, treaties, and trade : Qing imperialism and Choson Korea, 1850-1910*,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Mario Cams, 2017, *Companions in Geography: East-West Collaboration in the Mapping of Qing China(c.1685-1735)*, Brill
- Nianshen Song, 2018, *Making borders in modern East Asia : Tumen River demarcation, 1881-1919*,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 Seonmin Kim, 2017, *Ginseng and borderland : territorial boundaries and political relations between Qing China and Chosŏn Korea, 1636-1912*, Oakland,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uang Chen, 2017, State-sponsored inequality the banner system and social stratification in northeast China , Stanford, California : Stanford University
- S.C.M. Paine, 1996, *Imperial Rivals: China, Russia, and Their Disputed Frontier*, Routledge
- Robert H. G. Lee, 1970.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Victor Zatsnepine, 2017, *Beyond the Amur : frontier encounters between China and Russia, 1850-1930*, UBC Press
- Volpicelli, Zenone, 2010, *Russia on the Pacific, and the Siberian Railway*, Kessinger Publishing

Б. И Ткаченко, 성종환 옮김, 2010, 『러시아 중국 문서와 사실에 나타난 동부 국경』, 동북아역사재단

3. 연구논문

- 구범진, 2006, 「청대 '만주'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駐防體制'에서 '州縣體制'로」, 『東北亞歷史論叢』 14, 동북아역사재단
- 구범진, 2008, 「清代 對러시아 外交의 성격과 그 변화-締約大臣과 交換 條約文의 언어를 통해서」, 『大東文化研究』 61
- 김근하, 2016, 「丁丑約條의 성격과 顯宗代 安秋元 사건」, 『조선시대사학보』 78
- 김선민, 2018, 「청대 만주의 자연환경과 제국의 관리방식」, 『명청사연구』 49
- 김선민, 2008, 「인삼과 강역: 후금-청의 강역인식과 대외 관계의 변화」, 『명청사연구』 30
- 김형중, 2013, 「吳大澂과 1880년대 淸·러 동부국경감계」, 『중국근현대사연구』 60
- 박지배, 2019, 「러시아 대중국 국경의 형성과 접경성: 네르친스크-카흐타 국경 체제」, 『역사문화연구』 71
- 이지영, 2019, 『清末 新政期(1907~1911) 吉林省의 旗制 개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훈, 2013, 「17-18세기 淸朝의 滿洲地域에 대한 政策과 認識-건륭기 만주족의 위기와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중, 2006, 「光緒年間(1875~1908)의 동북관리와 1907년 東三省 설치」, 『中國學報』 54
- 최희재, 2004, 「光緒初 淸朝의 滿洲開發과 韓中關係의 再調整」, 『東洋學』 35
- 賈雲燕, 2015, 「淸朝封禁政策的演變及其對東北邊防的影響」, 『蘭臺世界』
- 高強, 2010, 「清末吉林沿邊地帶移民實地述論」, 『吉林師範大學學報』
- 孔艷波, 2008, 「穆拉維約夫武裝侵華與淸朝東北邊防」, 『東北史地』
- 董丹, 2000, 「曹廷傑及其《西伯利東偏紀要》」, 『西伯利亞研究』
- 羅見今; 王淼, 2008, 「晚淸輿地學者與新地學的興起」, 『哈爾濱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 馬熙森, 2012, 「曹廷傑與東北史地研究」, 『學理論』
- 石岩; 蓋立新, 1994, 「論曹廷傑的實業救國思想」, 『黑龍江史志』
- 沈一民; 徐廣巍, 2010, 「試論1849—1856年淸政府應對東北邊疆危機的舉措」, 『西伯利亞

研究』

- 楊松濤, 2010, 「关内移民与松花江流域的城镇近代化」,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 張鳳鳴·付傑·劉剛, 1990, 「曹廷傑和都魯河金礦」, 『北方文物』
- 陈可畏, 2018, 「吴大澂与晚清东北边务」, 『清华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 陈跃, 2014, 「论清代东北边防战略思想演变」, 『雲南師範大學學報』
- 陈勇勤, 1993, 「吴大澂东调帮办吉林边防小考」, 『社會科學戰線』
- 叢佩遠·趙鳴岐, 1985, 「曹廷傑生平活動年表」, 『歷史檔案』
- 彭传杰, 2008, 「论清末吉林机器局及其在加强东北边防中的作用」, 黑龍江社會科學院碩士學位論文
- 興夫·德標, 2001, 「愛國學者曹廷傑」, 『黑龍江史志』
- 古市大輔, 1996, 「清代後期の盛京行政とその變容-高官人事における異動傾向からみた分析-」, 『史學雜誌』 105
- 閻立, 2018, 「清末の滿洲開放論について」, 『大阪經大論集』 68

투고일: 2020년 8월 6일,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10일

▪ Abstract ▪

Cao Tingjie's Investigative Travels in Manchuria, 1885 : Manchuria Frontier Reform and Han Intellectualism of Late Qing

Song, In Ju (Sogang University, PhD Candidate)

This research clarifies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n Manchuria Frontier in the Late Qing era through Cao Tingjie(曹廷杰)'s investigative travels in Manchuria, 1885, and eventually, investigates how modern Chinese state changed Manchuria into his north-eastern frontier.

Cao Tingjie served as a local civilian officer of Jilin and as historian during the late Qing Era. After 1860, the Russian Empire and colonized Amur basin and threatened the Qing's sovereignty in Manchuria. For this reason, in 1885, Cao Tingjie investigated Qing-Russia Manchurian frontier and he recorded the reform agenda of the frontier defense in Manchuria for Qing court. In his reform agenda, Cao tingjie suggested economic reforms in Manchurian Frontier through the cultivation of wild lands and operation of gold mines in Amur River basin. Finally, Qing court adopted Cao tingjie's reform agenda and started the policy of Manchurian frontier reformation in 1890s, including the operation of gold mines.

Cao Tingjie's investigation and records on Manchuria are rich resources on the Qing Dynasty's modernization policies in Manchuria Frontier and Han Chinese scholars' plans to evolve the Qing Empire's birthplace into a 'Chinese modern state's north-eastern frontier. Consequently, Cao Tingjie's investigative travel has importance for understanding Qing Empire's Modernization policy in Manchuria.

Keyword: Cao Tingjie (曹廷杰), Qing Dynasty(清朝), Manchuria(滿洲), The Frontier policy reform(邊務), Jilin(吉林), Heilongjiang(黑龍江)